

다시 돛을 올리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사이 시간은 어느새 한 해의 중반을 달려갑니다. 모두의 노고와 희생으로 사태는 진정되는 듯 보이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멈추기에는 아직 이른 듯합니다.

힘든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기만을 고대하는 이때 우리는 심각한 경제 전망을 체감하며 노동시장이 겪어야 할 많은 난관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상황마다 노사가 하나 되어 극복해온 KT의 저력을 반추해 보면 다가올 충격에 대한 불안도 분명 기우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KT는 새로운 체제의 시작으로 조직의 동력을 재구축하게 되었습니다. KT의 성장을 위해 노동존중의 경영철학이 성실히 시행된다면 분명 KT의 위상과 조합원들의 자긍심이 높아지리라 믿습니다.

지난 4월 23일, KT노동조합 13대 집행부는 2020년도 사업계획을 결의하는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는 2년여의 성과를 다지고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마련해야 하는 임무가 남아있습니다. 어려운 국면 속 단체교섭의 난항이 예상되지만 강도 높은 안전대책 시스템 마련은 물론 유연한 근무체제를 제도화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초기부터 노동조합은 신속한 노사공동 대응과 활동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 성과를 이어 임금과 보수, 그리고 복지 전반에 대해 보다 밀도 있는 제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지방본부 통합을 통한 지역조직의 창조적 재구축 또한 올해의 큰 목표입니다.

노동조합 각급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집중해 더 탄탄하고 실속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시대적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노동조합은 다시 힘차게 돛을 올렸습니다. 새롭게 전진하는 노동조합의 길 위에 동지들의 바람과 성원이 순풍이 되어줄 것을 믿습니다!

Contents



04 KTTU NEWS 주요 단신 뉴스	16 현장속으로 노사 합동 현장 안전점검	28 Inside 플라스틱과의 전쟁
08 커버스토리 2020년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18 KT, KT人 ICT로 감염병 재난의 글로벌 해답을 찾다	30 [전문가 칼럼] 노동 이슈通 총선 후 노정 관계 시금석은 '사회적 대화'
12 기획특집 한국노총 5.1.플.랜.	22 이슈&사회 1 코로나19의 현 상황과 전망	32 카툰 달력의 휴일 개념 바로 알기
14 Check in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5G의 미래 - KT 5G 상용화 1주년	24 이슈&사회 2 긴급재난지원금 A to Z	34 독자 후기 및 퀴즈 독자 당첨자 안내
	26 이슈&사회 3 음식배달 플랫폼 독과점 논란	

판

'판'은 일이 벌어진 자리 또는 그 장면을 뜻하는 명사로, KT노동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만드는 '판'에서 즐겁게 일하는 조합원의 모습을 그려가는 소식지가 되고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KTTU

NEWS

KT TRADE UNION NEWS

VOL. **14**
2020 April & May

2020년도 전사 KPI 협의결과

KT노동조합과 회사는 지난 4월 14일(화)부터 5월 22일(금)까지 2020년도 전사 KPI 협의를 진행한 결과 노동조합 요구를 다음과 같이 반영했다.

- 주요 KPI 협의결과
 1. 2020년도 전사성과 평가 시 노동조합과 협의
 - 코로나19 등 경영환경 변화 시
 2. 정도영업 및 9 to 6 시행의 평가지표 반영
 - 성과관리지침 내 정도영업 미준수 또는 근로시간 위반 시 징계
 3. 비용절감지표 평가항목 제외
 - 인건비, 수련관위탁수수료, 피복비, 세탁비, 교육훈련비, 안전장구구매비, 사무실 전기요금 평가제외
 - * 부서운영비(연간 1인 20만원), 소모용품비(연간 1인 15만원) 한도 내 평가제외
 4. C부문 현장지표 개선
 - CS멀티업무역량 신설에 따라 시행 초기 목표 낮게 부여
 5. NW부문 현장지표 개선
 - 사업지원만족도 지표 평가구간 개선
 - 5G 오프로딩율 신설지표 목표 하향 (20% → 10%)
 6. 광역본부 현장지표 개선
 - 협업/시너지 지표의 개선 (비영업부서 영업금지 대책마련)

2020년 5월 성과급 지급 및 연간 성과급 지급계획 안내

2020년 5월 성과급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지급대상 :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G직/A직(청원경찰 포함)
- 지급기준
 - 지급산식 : 월 기준급 × 지급률
 - 지급규모
 - G직 : 100% = 부문(25%) + 담당(75%)
 - A직 : 85% = 부문(10%) + 담당(45%) + 개인(30%)
 - 계산기간 : 2020.4.1 ~ 5.31(61일)
- 지급일 : 2020.5.25(월)

※ 2020년도 연간 성과급 월별 지급률 등 자세한 사항은 KT노동조합 홈페이지 자료실 [문서정책] 참조



노동조합, 한국노총 사회연대공헌상 수상

KT노동조합은 KT등 20개 기업 노사가 연대하여 나눔의 실천과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에 앞장서는 UCC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노총이 수여하는 제3회 사회연대공헌상을 수상했다.

한국노총은 책임 있는 사회주도 세력으로서의 사회적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실천적인 사회연대·사회 복지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연대 공헌상을 제정했다. 이 상은 ▲사회취약 계층 ▲노동취약 계층 ▲최저임금 ▲일자리나누기 ▲비정규직 차별철폐 ▲한국노총 사회연대사업 참여 등의 항목을 심의위원회가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한다.

한국노총은 미래전략보고서에서 노동이 주도하는 ▲사회연대 강화 ▲사회개혁 전선 형성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 등 사회연대전략을 수립한 바 있다. 사회연대 활동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 체계 형성은 물론 향후 노동운동의 사회적 기반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노동운동이 기업별 노조체제를 기반으로 한 조직체계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정규직 조합원의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향상 등, 기업 수익의 분배에만 집중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소비자보호, 공정운영, 지역사회 참여 등으로 노동운동의 영역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김해관 위원장은 수상 직후 "연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가 아닌 전체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체가 되게 한다"며 지역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중학생 자녀를 위한 무료 인터넷 강의 신청안내

KT노동조합은 KT그룹사 임직원의 중학생 자녀를 위한 무료 인터넷교육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신규 신청을 받는다.

- 이용대상 : KT그룹사 임직원 중등자녀 및 예비 중학생(초등 6학년 이상)
 - 기존 이용자 : 2021년 2월말까지 자동 연장
 - 신규 신청자 : 신청화면에서 수박씨.com 회원가입 후 KT직원 인증
 - 이용기간 : 신청 시점부터 ~ 2021. 2. 28까지
 - 제공사항 : 중등 교과과정 온라인 교육 (수박씨닷컴, 중등 온라인 강의 무제한 수강가능)
 - 신청방법 예시
 - 1단계 : KT노동조합 홈페이지 > 나눔공감 > 무료인터넷교육 > 신청하기 페이지에서 중학생 서비스 신청
 - 2단계 : 수박씨.com 접속 > 수박씨 회원 가입 > 가입한 계정에 대해 KT직원 인증 후 서비스 이용가능
- ※ 수강가이드 및 활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은 노동조합 홈페이지 [조합소식] 참조



2020년 노동조합 규정개정 전담회의

노동조합은 5월 11일(월)부터 13일(수)까지 규정개정 전담반을 운영했다. 이는 지난 4월 개최한 전국대의원 대회에서 규정개정을 한 바,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제반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조합 규정 개정 전담반에는 변우영 사무처장 주관 아래 전형집 지원국장, 유희수 정책2국장, 정성호 법규국장, 김인관 조직1국장, 장병기 조직2국장이 참여했다. 변우영 사무처장은 본격적인 토의에 앞서 "본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인 지방분부는 물론 지부 등의 제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이를 세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했다"며 "법에 조금이라도 배치되는 부분은 없는지 조직운영 규정 및 처무규정 등의 세밀한 검토를 통해 KT노동조합의 유기적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규정개정 전담반은 노동조합 지방본부 조직 통폐합에 따른 지방조직운영 규정, 중앙본부 직제개편에 따른 처무규정, 하반기 각급 조직 대표자 선거에 따른 선거관리 규정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온누리 상품권 및 복지(기여)포인트 지급

KT노동조합과 회사는 온누리 상품권 및 복지(기여)포인트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 온누리 상품권
 - 지급대상 : 온누리상품권 신청 직원
 - 지급금액 : 100만원 (5천원권 지류상품권)
 - 단, 4월 개인별 구매자 및 중도입사자는 구매년도 내 차액 지급
 - 배송일정 : 부서별 순차적 배송
 - 1차 배송 : ~ 5.15(금) / 2차 : 5.18(월) 이후
 - 배송방법 : 소속 부서 일괄 배송
 - 사용방법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

- ▶ 복지포인트
 - 지급대상 : 복지포인트 희망 직원
 - 지급일정 : 5.6(수) 40만p 지급 (7월 초 40만p 지급/지급일 미정)
 - 지급내역 확인방법 : 5.6(수) 16:00 이후 확인
 - 개인형 복지카드(KT패밀리카드 등 신용카드형 복지카드)
 - <http://ibene.co.kr>
 - 법인형 복지카드(일부직원 이용, 신용거래불가 카드)
 - <http://wfc.wooribank.com>

[온누리 상품권 사용안내]

1. 사용처

- 전국 1,822개 전통시장 및 상점, 상권 활성화 구역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136,774개
- 검색창 "전통시장통통"(<http://www.sbiz.or.kr/sijangtong/nation.do>)에서 가맹점확인

2. 사용혜택

- 2020.6.30까지 전통시장 사용시

소득공제율 2배 확대 (40%→80%, 현금영수증 처리 必)

- 액면금액 60% 이상 구매시 잔액 현금수령가능
- 유효기간은 발행일 기준 5년이나 사실상 기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3. 문의처

- 온누리상품권 통합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득공제 문의처(국세청 ☎126)



2020년 노동조합 합동추모제 개최

KT노동조합은 4월 28일(화) 10시, 경기도 안성시 소재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선배 열사 합동 추모제를 개최하고,故 김낙성,故 김왕찬,故 오용철,故 김양중,故 윤준상 동지의 뜻을 기렸다. 열사의 유가족 및 중앙 및 전국 지방본부 상집간부들이 참석했던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사태로 축소되어 치러진 이번 추모제에는 노동조합 최장복 조직처

장과 중앙본부 간부들이 참석했다. 최장복 조직처장은 추모사를 통해 "우리가 계승해야 할 열사 정신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철통같이 지키겠다는 강한 책임감과 단호한 의지"라고 강조하면서 "비상한 상황에서도 노동조합의 민주화와 발전을 위해 투쟁한 선배들의 뜻을 받들어 2020년 사업을 더욱 힘 있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열사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 추모비를 마련하고 유가족과 함께 매년 합동 추모제를 거행하고 있다.



중등자녀 글로벌 어학연수 미시행 안내

최근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어학연수 시행 지역인 미국과 캐나다에서의 코로나19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정상화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국내의 기업 및 지자체에서는 단체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 단축과 맞물려 참여자의 학

교 정규수업 출석감소로 인한 학력저하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이에 따라 참여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2020년도 하계 글로벌 어학연수를 불가피하게 시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하계시즌 미시행에 따른 글로벌 어학연수 시행 세부방안 등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제3차 산하조직 대표자 회의 개최

노동조합은 4월 13일(월) 10시 30분, 충남지방 본부 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3차 산하조직 대표자회의를 열고 현안을 논의했다. 공유 안건으로 ▲2019년도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2020년도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 ▲지방본부 통, 폐합에 관한 사항 ▲규약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더 강도높은 안전대책과 재발방지 시스템 촉구

KT노동조합은 4월 7일(화), 지난 1일과 2일에 충남/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와 관련, 작업 시 안전수칙과 예방활동에 관한 현장 확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충남/전남 지역본부를 찾은 노동조합 박충범 산업안전국장과 장병기 조직2국장은 현장 안전 수칙 준수여부, 안전교육 실시 및 예방활동 여부, 관리자 안전관련 관심 노력여부, 조합원 작업환경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고 사고 보호자를 만나 위로했다.

노동조합은 재해 발생 즉시, 사고에 대한 현황 파악은 물론 회사에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신속하게 충분한 수습조치를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안전과 관련한 시설투자과 인력 보강에 대해 회사 측과 꾸준한 협의 아래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행한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향후 더욱 강도 높은 안전대책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SKT노동조합 위원장, KT노동조합 방문

KT노동조합 김해관 위원장은 4월 7일(화) SK 텔레콤노동조합 전환희 위원장과 만나 양 노동조합의 현안을 공유했다. 김해관 위원장과 이날 오전 10시 KT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전환희 SKT노조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양사의 매뉴얼과 현장 지원에 대한 실태 등을 듣고 의견을 나눈 데 이어 통신노동자 권익향상과 통신정책 선진화 및 공정경쟁환경 조성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2020년 건강검진 일정 연기 안내

KT노동조합과 회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2020년도 건강검진 시행을 조합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연기하기로 했다.

- 검진기간 : 추후 확정
 - 4월 이후 코로나19 진정 상황에 따라 추진
- 검진대상 : 직원본인, 배우자 및 미혼 직원의 부모 중 1명
 - ※ 제외대상 : 재직전출자, 임시/파견 계약직, '20년 신입사원(경력직 포함, 발행일 '20.11.1 이후)

구분	유형	출생일	
		구분	출생일
직원본인	만50세 이상	A형	'70.12.31이전
	만35세~50세 미만	B형	'71.1.1~'85.12.31
		C형	'86.1.1 이후
배우자 / 부모	만50세 이상	D형	'70.12.31 이전
	만50세 미만	E형	'71.1.1 이후

[주요 참고사항]

- 건강검진 지원 대상 확대 - 미혼 직원의 부모 중 1명 (2020년 신설)
- 스트레스 검사 시 신체질환 검사 항목을 추가 선제적인 심신 건강관리 강화 및 건강검진 수검률 100% 달성



CEO, 공식취임 후 노동조합 방문

3월 30일(월) 주주총회를 통해 공식취임한 구현모 KT 사장이 본격적인 경영활동 시작을 위해 KT노동조합을 찾았다. 김해관 위원장은 이날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11년만의 내부출신 CEO로 선임된 데 먼저 축하를 전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 그동안 중책을 맡아 온 경영진으로서 누구보다 KT가 나아갈 방향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전제한 뒤 "노사관계를 존중하는 철학과 종사원을 위한 통합의 리더십으로 시장을 선도하는 KT그룹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구현모 사장은 "CEO 선임과

정과 관련해 KT지배구조 개선 기반마련을 위해 여러모로 관심 가져주시 김해관 위원장과 노동조합에 감사 드린다"며 "향후에도 노동조합과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유지하며 KT의 기업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0년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개최 지방본부 통합해 강고한 조직으로 거듭나자

4월23일(목)부터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2020년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가 개최되었다.
전국에서 참석한 조합간부 및 대의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강당에서
2019년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식 순	
· 개회	· 의결
· 노동의	· 폐회
· 내외	· 인사
· 영수	· 청산
· 표창	· 여사
· 대	· 사
· 격	· 사
· 축	· 의
· 본	· 의



대의원 240명 참석, 코로나19사태로 대회 축소
지난 3월 말 개최예정이던 올해 전국대의원대회는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한차례 연기된 이후 한 달여
만에 규모를 줄여 간소하게 치러졌다. 부득이 대구
지역 40명 대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대구를 제외
한 전국 총 240명의 대의원들이 참석, 시작 전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철저한 준수사항을 이
행하면서 대회가 진행되었다.
대의원들은 대회장 내 마스크 착용은 물론 대기 시
에는 1미터 이상 충분한 앞뒤 거리를 확보했고, 회

의장 입구에서는 비접촉 체온계와 열화상 카메라
를 준비해 입장하는 대의원마다 체열을 측정했다.
또 장내에서는 일정한 거리를 확보해 좌석을 배정
하는 한편, 만약의 경우 발열과 기침증세가 사전에
확인된 대의원이 있을 시 입장을 제한하도록 했다.
대회는 김해관 위원장과 구현모 대표, KT그룹사
위원장 등의 입장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대의
원들은 먼저 민주화에 앞장선 선배 열사를 기리는
묵념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에 이어 2년여
의 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온 노동조합 13대 집행부

의 활동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노조기발의 입장과 함께 한통노조가를 부르며 사전행사가 시작된 가운데, 우수지부와 우수조합원에 대한 한국노총 위원장 표창과 KT노동조합 위원장 표창 등 수상이 진행되었다.

지방본부 통합은 시대적 요구

김해관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다해주신 KT 그룹 전체 임직원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한 뒤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 산업전반과 고용대란을 겪을 노동시장에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준비,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아래 구현모 CEO가 새로 선임된 만큼, KT가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통신 및 유료방송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더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하면서 “노동조합을 중요한 경영의 파트너로 인식함과 동시에 노동존중의 경영철학으로 땀 흘려 일하는 직원들의 비전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위원장은 또 “올해는 13대 집행부 임기 3년차로 무엇보다 조합원의 임금 및 복지욕구 충족을 실현하기 위한 단체교섭 전략이 중요한 만큼 짜임새 있고 완결성 있는 제도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올해는 지방본부 통합이라는 대단히 큰 조직형태 변화를 준비하고 시스템적으로 구축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시대적 상황에 맞는 지역조직의 창조적 재구축이라는 목표를 갖고 조합간부의 자기혁신과 역량강화, 그리고 현장조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조합원과 소통하면서 조직력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 강조했다. 힘든 시기에도 대회를 위해 참석한 한국노총 김동

명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코로나19사태에서도 조합원을 위해 헌신하는 김해관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간부와 대의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 뒤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위기가 도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조했다시피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코로나19사태를 이겨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강조하면서 “한국노총은 사회적 책임을 먼저 내세우고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중심으로 코로나 상황을 돌파하고자 한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더욱 분단한 노력으로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KT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 급변, 통신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의 한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새로운 KT의 CEO로 구현모 대표가 취임했다. 10여년만의 KT 내부인사 출신으로서 회사의 주체인 KT노조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취임한 구현모 대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의 대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해관 위원장 임기의 마지막 해에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코로나를 극복하는 시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노총도 KT노조의 동지이자 상급단체로 모든 역할을 다할 것”이라 약속하며 “KT노동자와 가족들에게 뜨거운 연대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KT 구현모 신임 대표도 축사를 통해 “위원장께서 종사원을 위한 희망의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셨는데 분명히 만들도록 하겠다. 12년 만에 내부 출신 대표로 취임하기 이전부터 KT구성원들이 원하는 KT그룹이 무엇인지 고민해왔다. 그 결론은 KT그룹 임직원이 모두 자랑스러워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당당하고 단단한 KT로 변모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주인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모두가 주인이고 단지 역할이 다를 뿐이므로 동료, 후배, 선배에게 주인 대접을 제대로 해야 한다. 상생의 노사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저 또한 노동조합의 의견을 존중해 뜻을 함께 모을 것이다. 2020년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렵

고 힘든 때가 될 것이다. KT는 비교적 코로나19 사태의 직접적인 타격이 적지만 세계 경제 약화 등으로 여러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큰 위기가 도래할 수 있지만 노사가 합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그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고 노동조합 대의원 대회에서의 첫 소회를 전했다.

2020년 4개 주요 안건 심의의결

2부에는 본회의가 시작되었다. 김해관 위원장을 의장으로 한 본대회는 성원보고, 안건 심의 및 의견, 기타토의, 결의문 채택 순으로 한 시간 여 동안 이루어졌다.

이번 전국대의원대회 주요 안건은 ▲ 2019년도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 2020년도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 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 ▲ 지방본부 통합에 관한 사항 ▲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모두 가결되었다.

결의문 채택을 마지막 순서로 위원장과 전 간부는 단체교섭 승리를 힘차게 다짐하며 2020년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폐회했다.

한편, 노동조합은 지난 4월 13일 충남지방본부에서 제3차 산하조직 대표자 회의를 통해 올해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필수 조합간부만 참석해 간소하게 대회를 진행하기로 논의했다.

김해관 위원장은 이날 ‘노동조합의 각종 사업계획 등 심의를 다뤄야 하는 전국대의원대회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밝히고 ‘건강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분은 참석을 지양하고 예방수칙을 더욱 철저히 챙길 것’을 당부한 바, 이번 전국대의원대회는 참석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행사 당일 대화장 좌석간 거리두기와 발열체크 등으로 감염병 확산방지 지침을 적극 준수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안전사고 없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다.



▲ 격려사를 발표하는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 KT 구현모 대표의 축사



'5'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한다는 의미.

'1'은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에게 퇴직급여 보장을 확대하는 것.

한국노총 5.1.플.랜.

노동중심 경제위기극복 프로젝트

지난 5월 1일,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모였다.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세계사적 전환에 대비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선언이 있었다. 특히 한국노총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 보호, 시간주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5.1.플.랜.'을 제시하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5.1 플랜' 공식 포스터

경제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

노동절 130주년을 맞은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바이러스 자체도 위협적이지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다. 코로나19와 더불어 최악의 경제위기도 함께 찾아왔다. 각국 정부에서 재정지출을 늘리며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경제위기마다 가장 피해를 입는 계층은 노동자였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 '정리해고'라는 이름으로 거리로 내몰렸고, 이들의 희생으로 위기는 잦아들었다. 하지만 위기가 지나간 이후에도 노동자들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었다. 역사는 반복된다.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던 방식으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지난 5월 1일, 한국노총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 '5.1.플.랜.'을 제시하였다. '5.1.플.랜.'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와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한국노총의 노동중심 경제위기 극복 프로젝트로, 각 플랜의 머릿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다.



'플'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근로기준법 확대와 퇴직급여 보장

먼저 첫 번째, '5'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58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무려 25%에 달하는 수치다. 한국노총은 법 개정을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 기준법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영세·중소사업장 부담 및 혼란 가중 등으로 조속한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법정노동시간, 휴일, 연장노동제한, 연장·야간·휴일노동, 연차유급휴가의 5개 조항은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두 번째, '1'은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에게 퇴직급여 보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노동시장 및 고용환경의 변화로 이직횟수, 이직주기가 점차 짧아지면서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근속기간 1년 미만'노동자들의 임금·소득보장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가장 큰 문제는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의 경우, 퇴직급여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저소득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소득보장·중대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보호

세 번째, '플'은 플랫폼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플랫폼경제가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노동 형태가 세분화되며 관련 종사자의 규모도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2019년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플랫폼경제 종사자의 규모는 전체 취업자의 1.7%인 46만 9,000명으로 추

정된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모호한 법적 지위로 인해 전통적인 노동법체계에 편입되지 못하고, 각종 노동관계법이나 사회보험 등 사회적 보호나 권리에서 배제되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노출되고 있다. 기업들 역시 종전의 도급·파견·계약직·일용직 등을 플랫폼 노동으로 대체하면서 사용자책임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플랫폼 노동이 사용자 책임 회피 및 새로운 중간착취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랜'은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노조할 권리 보장하는 것이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풍토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프리랜서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기준 국내 프리랜서 규모는 약 22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프리랜서들은 업무에 있어서 노동자와 같이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보수·사회보험·계약관계 등에서는 자영업자로 취급되어 업무상 발생하는 모든 위험부담을 떠안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나 모임이 취소되는 상황에서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에서는 '5.1.플.랜.'에 프리랜서 지원을 포함시켜 이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 하고 있다.

한국노총의 '5.1.플.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것이 단순한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대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투쟁이 필요할 것이다.



'랜'은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노조할 권리 보장하는 것.

노동조합과 함께하는 5G의 미래 KT 5G 상용화 1주년

5G

빠른 전송속도와 초저지연을 구현하는 기술

2019년 4월, KT는 국내 최초로 5G 상용화에 성공했다. 지난 1년 동안 KT는 5G 기술의 프론티어로서 5G 통신망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각종 핵심 기술을 통해 고객들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KT 5G 서비스의 중심에는 '에지(Edge) 통신센터'가 있었다. 5G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최대한 사용자와 가까운 곳에서 처리하는 '모바일 에지 컴퓨팅(Mobile Edge Computing, MEC) 기술이 필요하다.

KT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데이터 트래픽이 모두 수도권권의 중앙통신센터로 전송·처리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주요 8개 도시에 모바일 에지 컴퓨팅 기술을 적용한 '5G에지 통신센터'를 구축했다. 특히 5G에지 통신센터 구축에 도입된 '5G 코어 장비와 네트워크 가상화 기술'은 지연 없이 실시간 방송, 온라인 게임 등 원활한 5G 핵심 서비스 제공에 기여했다.

일상을 바꾸는 다양한 5G 서비스

지난 1년 동안 KT는 커뮤니케이션, 게임, 미디어 등 분야별로 다양한 5G 서비스를 론칭했다. 누적 다운로드 수 50만 명 이상을 기록한 'narle(나를)' 서비스는 3D 아바타, AR 이모티콘, 뷰티 기능을 이용해 자신의 모습을 자유자재로 꾸밀 수 있는 영상통화 서비스다. 5G 기반의 3D와 AR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2차원의 평면적인 영상통화와 차별화된 재미를 제공한다. 최대 8명이 동시에 고화질로 영상통화를 할 수 있으며, 다양한 감정과 상황을 AR 이모티콘으로 표현할 수 있다.

'KT Super VR'은 8K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로 즐기는 독립형 올인원 VR 서비스다. 스마트폰을 끼워서 사용해야 하는 VR과 달리, 디스플레이가 내장되어 있어 단독 실행이 가능하며, 언제 어디서나 초고화질로 영상 감상이 가능하다. 현재 KT는 450편의 초고화질 콘텐츠와 개인형 실감 미디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이면서 차별화된 몰입감과 재미를 전달하고 있다.

'스트리밍 게임' 역시 KT의 대표적인 5G 서비스다. 국내 최대 KT 5G 에지 통신센터를 통해 다운로드 없이 원격 서버 스트리밍으로 게임을 즐기는 서비스로, 기기 성능이나 장소 제약 없이 고사양 게임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리얼 360'은 특별한 일상의 순간을 360도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다. 초고속·초저지연 특성을 활용해 '리얼 360 라이브', '리얼 360 영상통화', '리얼 360 갤러리', '리얼 360 스토리' 등 KT 5G 기술을 활용해 일상의 행복한 순간을 360도로 간직할 수 있다. 그 밖에도 KT는 다양한 5G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의 일상을 놀라게 변화시키고 있다.

공격적인 투자로 커버리지 확대

지난 1년 동안 KT는 국내 이동통신사 중에서 5G에 가장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했다. 2019년 국내 3대 이동통신사에서 5G망 구축을 위해 추진한 설비투자(CAPEX) 비용은 약 8조 7,807억 원이다. 이는 통신 3사의 연간 투자금액 중 역대 최대 규모로 2018년 대비 약 60% 증가한 수치다. 특히 KT는 국내 통신사 중 가장 많은 3조 2,568억 원을 투자비용으로 집행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위

험 속에서도 5G 커버리지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KT는 2019년 4월 상용화 당시 3만식 기지국 장비를 구축했으며, 현재까지 추가로 개통 완료된 5G 기지국은 4만 3,000여식에 이른다. 또한 올해는 5G 상용화 1주년을 맞아 보다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물 안 5G 커버리지'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통신망을 빠르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 투자와 더불어 현장 노동자들의 활약이 필요하다. 수많은 KT 5G 서비스의 근간에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움직이는 KT노동조합원들의 땀과 열정이 있는 셈이다. 기술은 결국 사람의 손에서 시작된다. 서비스 1주년을 맞이한 KT의 5G 기술은 앞으로도 KT노동조합 구성원들의 힘을 바탕으로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것이다.

표 1. KT 5G 전용 서비스 현황

서비스	내용	비고
narle(나를)	모습을 마음대로 바꾸고,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만날 수 있는 서비스	무료
리얼360	360도로 세상을 둘러볼 수 있는 서비스	무료
스트리밍 게임	PC/콘솔 고사양 대작 게임을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서비스	무료
프로야구 Live	직관보다 더 실감나게 야구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	무료
뮤지션 Live	최애 뮤지션이 눈 앞에 나타나는 서비스	무료
리얼 지니팩	원음 그대로 생생한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서비스	유료
KT Super VR	새로운 세상으로 빠져드는 VR 서비스	유료
싱스틸러	언제 어디서나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서비스	무료
KT 기프트박스	제휴 할인 쿠폰, 데이터 혜택 서비스	무료

표 2. KT 5G 지역별 커버리지 현황(2020년 5월 12일 기준)

구분	기지국 장비 수		무선국 신고 수
	구축 장비	개통 장비	
전국	87,430	74,145	43,561
서울	23,309	18,550	10,944
수도권(인천 포함)	24,172	20,933	12,267
강원도	2,495	2,420	1,489
충청도(대전 포함)	8,279	7,079	3,934
전라도(광주 포함)	6,671	6,122	3,339
경상도(부산대구,울산 포함)	21,551	18,218	11,118
제주도	953	823	470

※ 인빌딩 커버리지 현황: KTX 서울역, 신촌 현대백화점 외 누적 673개 건물 KT 5G 서비스

조합원의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노사 합동 현장 안전점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6개 광역본부의 현장 안전점검이 시작되었다. 사고와 재해로부터 조합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일은 국민기업으로서의 신뢰를 지속해나가는데 있어서도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일. 지난 4월 20일 노사 합동으로 실시된 노원지부 현장 안전점검 과정을 살펴보면 생명과 안전의 가치를 되새겨본다.



6개 광역본부 대상, 취약시설 위주로 진행

노원지부에서 노사 합동 현장 실태조사가 진행된 것은 지난 4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간동안이다. 노동조합 박충범 산업안전국장장과 정성호 법규국장장을 비롯한 합동 점검단 4명은 점검에 앞서 현장 직책자들과 만나 취지를 설명하고 사고 사례와 안전사고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달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산업안전국장장은 이 자리에서 “직책자는 출동 전 당일 작업 일정을 체크하고, 특히 위험 작업구간을 비롯해 작업장 환경 및 주의사항에 대해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또 작업 차량은 필수 안전장비를 구비하고 관내 위험시설은 등급화해 관리하고 공유되어야 한다”며 “실례로 강북본부는 위험시설을 순위화해 DB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Biz지원팀의 경우 1인 출동 시 안전에 각별히 신경



을 써야 한다. 사고가 주로 점심 1시간 전, 퇴근 1시간 전에 발생하는데 이는 서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LED 표시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안전점검의 날은 본질에 맞게 운영되도록 신경써야 한다. 아울러 9to6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 혹시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 해도 안전 수칙을 제대로 준수했을 경우에는 이익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반영할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사고 예방하고 안전의식 고취가 목적

이처럼 현장으로 자리를 옮긴 점검단은 먼저 중계동 맨홀 현장의 공기압 작업을 점검했다. 이곳에서는 도로 중앙과 같은 위험지역 맨홀 작업을 할 경우 인력 지원 등 별도의 안전 조치와, Biz지원팀 예비 차량도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안전 장구류를 완벽히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또 CM작업차량은 사다리가 무겁더라도 현장 작업 시에 반드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현장점검 후에는 산업안전보건 기본계획,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보건위탁 대행 관련서류, 가스탐지기 교정결과서,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등을 위주로 서류 점검이 이루어졌다.

강도 높은 안전대책 시스템 마련에 힘쓸 것

박충범 산업안전국장장이 다음날 노원지부에 통보한 결과 보고에 따르면 ‘안전점검에 대한 자체적인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신규 예비 작업차량에 삼각안전대 및 라바콘 비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중

량물 작업계획서가 다소 미비한 점을 제외하면 전체적인 서류구비 상태와 작업자의 안전준수 및 안전장구류가 양호했다’는 평이다.

한편 노동조합은 그간 안전과 관련한 시설투자와 인력 보강에 대해 사측과의 꾸준한 협의 아래 지속적인 관리를 해오고 있다. 하지만 사고는 늘 예고 없이 불시에 발생해 모두를 안타깝게 한다.

지난 4월 7일, 작업 시 안전수칙과 예방활동에 관한 현장 확인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한 것 역시 이번 현장 안전점검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는데, 당시 박충범 산업안전국장장과 장병기 조직2국장장은 충남과 전남 지역본부를 찾아 현장 안전수칙 준수여부, 안전교육 실시 및 예방활동과 관리자 안전관련 관심 노력여부, 조합원 작업환경 애로사항 등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4월 1일과 2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망·사고의 일환으로 노동조합은 이날 사고 현황 파악은 물론 회사에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 수습 조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사고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언제든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를 위해 향후 노동조합은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한 더 강도 높은 안전대책 시스템을 마련해 조합원의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ICT로 감염병 재난의 글로벌 **해답**을 찾다

AI/BigData사업본부
AI/BigData서비스담당
SI이니셔티브팀
(좌)이재호 / (우)장아름 조합원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감염병의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의술의 힘만이 아닌 ICT가 융합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극복해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다. 그 중심에는 **‘글로벌 감염병 확산방지 플랫폼(GEPP)’**이라는 KT만의 독보적인 대안이 자리한다. 감염병은 더이상 발병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KT는 국민, 더 나아가 세계인의 건강을 위해 선두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체계를 확립해가고 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류사회공헌이라는 보다 큰 미래를 위해 오늘도 머리를 맞대고 있는 주역들, GEPP를 만든 이재호, 장아름 조합원을 만났다.

GEPP, 1인 1모바일 시대 감염병 확산의 해결법

‘글로벌 감염병 확산방지 플랫폼(GEPP, Global Epidemic Prevention Platform)’은 1인 1모바일시대에 감염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산을 예방하고자 마련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현재까지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GEPP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로밍 정보를 활용, 중국을 방문한 여행자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정보를 제공하고 확진자에 대한 동선을 추적하는 데에 활용되었다. 또 통신데이터를 활용해 이태원 클럽과 같은 집단감염 발생지역의 방문자도 찾아낸다.

“GEPP는 개인 단위로 휴대전화의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방역에 활용하는 플랫폼입니다. 통신사는 언제 어디서라도 통화나 문자,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끊임없이 사용자들의 휴대전화와 통신을 주고받고 있고, 그 내역은 통신사에 저장됩니다. 이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해서 잠복기 동안 어디를 갔었는지 파악하는 원리입니다. 또 이태원 클럽과 같이 다중밀집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을 때는 가장 가까운 기지국에 30분 이상 체류한 기록만 따로 분석해서 방문자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통계 정보를 활용해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얼마나 많이 준수하는지 등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데에도 활용하고 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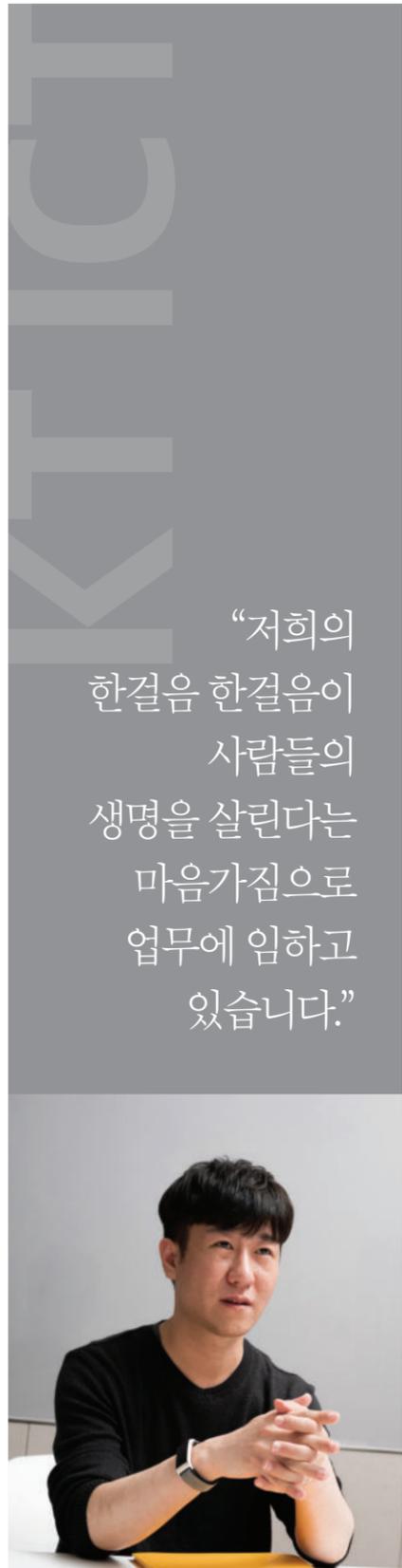
KT에 2010년에 입사해 빅데이터 조직이 처음 만들어진 2012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데이터 기반 사업을 기획·실행하는 업무를 맡아온 이재호 조합원은 현재 GEPP에 대한 연구와 해외 국가의 적용 등이 주된 업무지만, 현재는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같은 해 입사한 장아름 조합원 역시 2017년부터 이재호 조합원과 같은 부서에서 일해 왔다. GEPP와 유사한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 플랫폼(LEPP)’연구가 본래 업무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는 이 일에 매진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업무는 정부기관에서 수시로 요청이 오면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관련 데이터를 즉시 제공해야 해서 늘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담당하는

“GEPP는 개인 단위로 휴대전화의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방역에 활용하는 플랫폼입니다.”





LEPP 연구개발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방통위나 과기부에 개인정보를 어디에 얼마나 몇 번씩 제공했는지도 파악해서 보고해야 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높은 만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이 잦고 대응할 인원이 부족하다보니 야근과 휴일 근무도 수시로 해야 하지만 필요할 때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나름의 자부심으로 최선을 다해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빌게이츠도 지원, 신성장 동력으로 수출 시동

GEPP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부터 연구가 시작되었다. 당시만 해도 감염병 위험이나 증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확진 판정이 늦어져 메르스는 국내에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때 KT는 통신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안을 UN과 정부에 제안했고, 2016년 국내에 감염병 확산방지 플랫폼이 KT 가입자에 한해 처음 시작되었다. 2017년에는 국내 통신 3사 통합으로 ‘해외 유입 감염병 차단 문자서비스’가 시작되었고, 2018년 다시 메르스가 발병했을 때는 이렇게 사전에 구축된 플랫폼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KT는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과 함께 ‘감염병 대비를 위한 차세대 방역 연구에 3년간 각각 60억 원씩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알려진 바대로 빌게이츠는 그간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을 극찬하며 전 세계 지도자들이 국가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호 장아름 조합원 역시 이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이재호 장아름 조합원의 역할도 덩달아 커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하게 늘어난데다 국내 확진자 발생 시 통신사 대응 업무까지 추가되면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글로벌 사회에 기여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수출시장까지 넓혀나가는 일은 회사로서도 고무적이라 생각해요. 특히 저개발 국가들은 통신인프라, IT역량, 정부역량이 모두 열악한 상황이라 개발 자체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제도나 인프라, 기술면에서 우리와 다른 해외통신사와 기술을 제휴하기 때문에 적용 상황에 따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내딛는 한걸음 한걸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살린



다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KT인 모두가 자부심 가졌으면!

지난 2월 25일 KT는 제25회 2020 글로벌 모바일 어워드에서 GEPP로 ‘UN SDGs 모바일 기여’부문에서 수상했다. 이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가 주관하는 세계적 권위의 ICT 분야 시상식이다. 기술·단말·콘텐츠 등 모바일 산업 전반에 걸쳐 주요 혁신과 성과를 달성한 기업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세계 공중 보건을 위한 필수도구이며 이러한 접근법과 생태계 협력을 통해 탁월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것이 수상의 총평이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온 이재호 조합원은 힘든 고비도 많았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있지만 뿌듯함도 있다고 말한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서 확산하고 있는 지금도 프라이버시가 우선이나, 생존이 우선이나에 대하여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는 2015년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법적으로도 국민 정서로도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분위기가 있었죠. 하지만 개인의 동선 전체를 통신정보와 카드 정보로 추적하는 현재의 체계는 2017년 KT와 질병관리본부가 협력

하여 완성하였지만 개인정보의 과도한 사용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면적인 시스템 구축까지 진행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국내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온전하게 적용되어 K-방역체계의 중요한 역할로 자리 잡은 것이 가장 보람찬 일입니다.”

아울러 두 사람은 우리나라는 이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방역이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ICT로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데 큰 일조를 한 KT 조합원 모두가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끝까지 힘내자는 당부를 전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의 방역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방역 당국, 의료진, 전 국민의 동참 등 많은 이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진 측면도 있지만 2016년부터 데이터에 기반한 디지털 방역 연구에 활발하게 활동한 KT의 기여도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큼 KT를 성장시켜오신 KT노동조합원 한 분 한 분의 노력 덕분에 이룬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보다 더욱 자부심 넘치게, 더욱 당당하게 업무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어디까지 왔는가

코로나19의 현 상황과 전망

지난 4월 27일을 기준으로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3백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에 비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끊임없이 재유행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 각국도 여전히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전 세계 의학연구소는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코로나19에 대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감염과 확산, 방어와 재확산의 반복

코로나19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한 지 약 5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일각에서는 벌써 ‘포스트 코로나’를 논하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19와의 전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전 세계적으로 방역 및 검사 장비가 부족한 가운데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더욱 갈 길이 멀다.

지난 4월 30일, 해외에서 유입된 4명의 확진자 외에 지역사회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의료계의 헌신과 정부의 고강도 방역 시스템, 온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빠르게 확산을 낮출 수 있었다.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며 조금씩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기대되는 수준까지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코로나 사태가 끝날 수도 있다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대두되었지만, 이내 이태원 클럽에서의 지역감염에 4차 확산까지 진행되어 ‘잔인한 바이러스’의 위력을 새삼 절감하고 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코로나바이러스의 가장 큰 위험소는 바로 불확실성이다. 그중에서도 ‘빠른 변이’와 ‘무증상 확산’은 완벽한 진화를 막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이다. 정확한 실체를 알 수가 없으니 대처도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크게 3가지 유형의 변이를 일으키며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이목을 집중시켰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 코로나19 감염 환자 160명으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의 염기서열을 분석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초기 진화 경로를 재구성했다.

그 결과 A형, B형, C형의 총 세 가지 유형으로 변이를 일으키며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는 결론을 얻었다. A형은 중국 우한에 거주했던 미국인들에게서 발견돼 미국과 호주로 전파되었고, A형에서 변이된 B형은 중국 우한에서 크게 유행했으며 동아시아 지역 환자들에게서 나타났다. B형에서 변이된 C형은 유럽의 초기 환자들에게서 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런 변이의 과정이 밝혀지고 있다고 해도 유래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적인 구분일 뿐, 아직 그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하다.

후각과 미각 상실 증상 추가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증상도 보고되고 있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에 ‘후각과 미각 상실’을 추가했다. 영국 이비인후과 협회의 보고에 따르면 ‘독일과 이탈리아 등에서 확진된 환자 중 3분의 2 이상이 후각감퇴나 상실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이 증상을 보인 환자들의 증세가 다른 환자들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학 메디컬센터 연구팀은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169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각과 미각 상실 증상이 있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중증도가 가벼워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아직 연구 표본이 적고,

이후의 명확한 관계가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재양성 가능성

우려되는 부분은 사스나 메르스 때는 없었던, 완치자들의 ‘재양성’ 사례다. 재양성의 원인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와 전문가들은 ‘죽은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바이러스 유전자를 검출하는 방식인데, 죽은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남아있다면 그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수도 있다. 재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바이러스 배양 검사를 재차 실시한 결과 다시 음성이 나온 것을 보면 죽은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들을 통한 2차 전파 사례도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역시도 아직까

지는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

장기전에 대비해야

코로나19가 단기간에 종식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치료제 상용화도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방역과 연구의 최전선에서 열심히 노력 중이다. 지금까지 쉴 새 없이 논문이 발표되고 있고, 더디나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가을 팬데믹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주기적 유행 반복 가능성을 강조하며 국민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감염병 대비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러스의 작동 원리를 더 정확히 알아내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성공할 그 날까지 우리 모두 조금 더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 시작

긴급재난지원금 A to Z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국민 생활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사용방법은 물론 그 효과와 과제 등 새로운 시도가 불러온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며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정부가 한시적인 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바로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가구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이 그것이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을 개시한 지난 2020년 5월 4일 이후 5월 26일까지 2,171만 가구에 12조 9,640억 원을 지급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전체 예산 14조 2,448억 원의 91% 수준이다.

지역경제·골목상권 살리고, 소득공제도 받고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의 주소지(시·도)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취지에 따라 시장, 동네 마트 등 대부분의 지역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편의점이나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포함되나, 직영점의 경우 확인이 필요하다. 복권은 구입할 수 없고, 세금이나 보험료 납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백화점과 면세점, 대형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유흥업소와 골프 연습장 등에서도 사용이 제한되니 사용처를 꼼꼼하게 알아보고 사용하도록 하자.

본인 소득으로 지출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상품권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연간 카드 소비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급수단	지역제한	업종제한	사용 기한	온라인 구매	
신용·체크카드	광역자치단체 (특·광역시, 도)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 (아동돌봄쿠폰 제한업종 수준)	~8. 31.	사용 불가	
선불카드	지자체별 설정 (광역 또는 기초)		8. 31까지 사용 권장		
지역사랑 상품권	지류형 모바일형 카드형	광역 또는 기초 (기존 지역제한 유지)	광역 또는 기초 (기존 지역제한 유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 (기존 업종제한 유지)

기부와 소득공제 가능

사용 기한은 2020년 8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다. 종이로 지급받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 기한이 5년이지만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신청 과정에서 기부 의사를 밝히면 지원금 전액이나 일부를 기부할 수 있고 석 달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 처리된다. 온라인 신청 중에 실수로 기부 버튼을 눌렀을 경우, 카드사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당일 수정하지 못했다면 추후 주민센터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며 고용안정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에 사용된다. 기부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10년 이내)를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지급으로 나타난 지역경제 활성화

무엇보다 이번 긴급재난 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은 발표-신청-지급까지 불과 한 달여 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과 그것이 곧바로 경제효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5월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통계인 소비자 심리지수(CCSI)가 77.6으로 전월대비 6.8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여전히 소비자심리지수가 낙관적이라고 해석할 수만은 없지만 2월(96.9)→3월(78.4)→4월(70.8)까지 이어진 하향 추세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막대한 현금이 전국민(가구)을 대상으로 지급되면서 소비의 증가가 자영업자 및 기업 매출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 방역지침이 '생활방역'으로 완화된 것도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다양한 시도, 새로운 일상

그동안 일종의 미덕처럼 여겨졌던 기부문화도 이번에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물론 기업들까지 나서 '기부 대신 소비'를 권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 역시 다양한 이벤트와 마켓을 준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일명 '포켓팅(감자와 티켓팅의 합성어)'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이슈의 중심에 섰던 강원도지사는 감자 판매 이벤트를 시작으로 침체된 화훼농가를 위해 주변에 꽃다발을 선물하는 '플라워 버킷 챌린지'를 이어가 지역농가와 소비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면대면 접촉을 피하면서 단계적 방식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다양한 시도는 곳곳에서 이어졌다.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에 이어 드라이브 스루 플라워 마켓을 여는가 하면 서울 동작구에서는 구청 홈페이지에 '골목상권 이용 인증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온라인 상품권을 지급하는 캠페인을 진행해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어냈다.

긴급재난지원금 덕분에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었다지만 이는 한시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그동안 외출을 삼가고 소비를 자제해온 사람들이 일시적 지원금을 한꺼번에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긴급 처방 후에도 소비가 유지될 수 있는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얻은 성과와 과제를 통해 전시 재정 편성,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한국형 뉴딜 정책 등 일자리 확보와 경제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경기 둔화를 막고, 위기를 기회 삼아 전 세계 누구도 이루지 못한 새로운 'K-경제'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음식배달 플랫폼 독과점 논란

글로벌민족이 된 배달의민족



요기요 + 배달의민족 = ?

지난해 12월 국내 음식배달 플랫폼에 대규모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이 국내 2위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인 독일업체 '딜리버리히어로(DH)'에 인수된 것이다. DH가 평가한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가치는 40억 달러(약 4조 7,500억 원)로, 이는 국내 인터넷 기업 인수합병 중 가장 큰 규모이기도 했다.

양사는 아시아에서 공동 사업에 나서는 한편 국내에서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각 회사의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경쟁 체제를 유지하면서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는 서비스로 각각 발전시키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배달앱의 독과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이 55~60%, 요기요와 배달통이 40~45%를 차지한다. 합병 이후 실질적으로 DH가 배달 앱 시장 전체를 장악하게 되는 구조다.

독과점에 대한 우려는 곧 현실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은 올해 4월 1일 새로운 수수료 정책을 발표했다. 기존 정액제는 가게당 3건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배민앱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의 5.8%를 수수료로 가져가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기존에는 정액제 1건당 월 8만 8,000원 수준의 요금만 내면 됐지만 새 정책 이후에는 매출이 높은 음식점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게 된 것이다. 이는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 지출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순이익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했다.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늘리는 편법 인상이라는 여론이 확산되자 해당 정책을 철회하기로 했으나, 독과점이 형성된 상황에서는 언제라도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에 칼을 빼들다

이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배달의민족', 'G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겨냥한 규제 신설에 나섰다. 현행법으로는 광고비·수수료 과다부과나 불합리한 정산 절차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배민과 DH가 인수합병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배달 앱 시장의 독점기업 출현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공정위의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관련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백화점·대형마트 등과 비슷한 성격을 지닌 중개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납품업자가 판매촉진비의 50% 이상을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서면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수수료 현황 등이 납품업자에게 공개되는 서면실태조사는 사실상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방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를 보다 현실화하겠다는 방안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새로운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가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심지어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업계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당장은 반사이익을 줄 수 있겠지만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공공 배달앱을 선보이는 지자체

한편 배달의민족의 새로운 정책에 반기를 든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 배달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공 배달앱은 중개 수수료나 광고료를 없애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마련된 제도다.

지자체 중에서는 최근 전북 군산시에서 최초로 공공 배달앱을 선보였다. 군산시에서 출시한 공공 배달 앱 '배달의명수'는 3월 출시 후 약 한 달간 1만 6,000여 건의 주문을 처리했으며, 앱에 가입한 군산시민도 7만 6,000여 명으로 급증했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고정 비용이 줄어든 일부 자영업자들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내리기도 한다. 이처럼 공공 배달앱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를 벤치마킹해 최근 경기도를 비롯하여 진주시, 제천시, 춘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공공 배달앱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많은 세금을 들여 지자체별 앱을 개발·관리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앱을 만들고 유지·관리·보수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정부와 지자체 등의 지나친 민간 분야 개입이 시장 생태계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배달앱은 기술 발전과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라 등장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보다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온라인 사업은 독과점 상황에서 기존 오프라인 사업보다 훨씬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배달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은 기업이 독자적으로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공유하는 구조다. 따라서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율이 필요할 것이다.



새로 바뀌는 환경 정책 플라스틱과의 전쟁

우리나라는 일회용 플라스틱, 비닐봉지 사용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국민 한 명이 1년 동안 약 400여 개의 비닐을 사용하는데, 이는 독일의 6배, 아일랜드의 20배, 핀란드의 100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한다. 이에 정부에서도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딱 한마디, 플라스틱!

영화 <줄업>(1967)에서 대학을 졸업한 주인공에게 맥과이어 씨는 이렇게 말했다. “딱 한 마디, 플라스틱(Just one word, Plastics)!”이 대사는 당시 플라스틱의 산업적 가능성을 암시하는 동시에 기성세대의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하는 것이었다. 싼값에 무엇이든 대량 생산할 수 있고, 쉽게 버릴 수 있는 플라스틱은 산업자본주의 그 자체

였다. 그리고 50년의 세월이 흘러 스크린 속의 대사는 예언이자 저주가 되었다. 플라스틱은 물질적인 풍요를 만들어냈고, 그 덕분에 우리는 골치 아픈 환경문제에 봉착했다. 플라스틱의 문제는 값싸고 편리하지만 내구성이 지나칠 정도로 높다는 것이다. 플라스틱은 수백 년 이상 썩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도 생분해되지 않고, 그저 더 작은 조각들로 분해될 뿐이다.

이 플라스틱 조각들은 끊임없이 독성물질을 배출한다. 매립된 플라스틱의 독성물질은 지하수에 섞여서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먹이사슬을 거쳐 최종적으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온다. 이러한 독성물질은 암, 선천적 장애, 면역기능 장애, 내분비 교란 등 수많은 질병을 유발한다. 내가 합부로 쓰고 버린 플라스틱이 결국 나와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셈이다. 물론 플라스틱은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에게도 고통을 준다. 물고기들은 바다에 떠다니는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삼키기도 한다. 지난 2018년 콧구멍에 플라스틱 빨대가 박힌 거북이의 유튜브 영상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전 세계적인 일회용 빨대 퇴출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지금 당장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지 않으면 언젠가 지구는 쓰레기로 뒤덮인 행성이 될 것이다.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환경부는 지난 2019년 11월 22일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 사용을 ‘제로화’해 2020년까지 일회용품 사용량을 35%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근거로 그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빨대·종이컵·배송용 포장재 등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빨대는 연간 사용량이 무려 20억 개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상 일회용품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매장 내에서 플라스틱

컵은 사용하지 못해도 빨대는 가능했던 이유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2021년부터 매장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무료로 제공할 수 없으며, 2022년부터는 전면 금지된다. 한편 온라인 시장의 성장과 함께 사용량이 크게 증가한 일회용 포장재(스티로폼 박스·비닐완충재·이스팩 등)에도 제동이 걸린다. 환경부가 2022년부터 재사용 박스 사용률을 높이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50실 이상 규모의 숙박업체는 2020년부터 샴푸·린스 등 위생용품을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기에 담아 제공해야 한다.

투명 페트병 폐비닐 분리배출

환경부는 2020년을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정하고 폐기물 재활용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 첫 시작은 플라스틱 재활용 체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추진되는 ‘페트병 재활용 체계 개선’이 대표적이다. 현재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모든 재활용품을 한꺼번에 배출하는데, 분리선별장에서는 음식물이 그대로 담긴 플라스틱 용기나 비닐에 담긴 채 배출된 페트병 등이 골치라고 한다. 비닐에 묻어 있는 오염물질이 다른 재활용품에도 묻어 재활용 비율을 전체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5월부터 폐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별도 분리한 후에 버리는 ‘분리배출제’를 시범 운영하기 시작했다.



서울시 '분리배출제' 안내 포스터

7월부터는 전국 아파트로 확대되며, 단독주택은 2021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도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기업에서는 올해 말부터 생수·음료 페트병을 투명한 색으로 바꾸고 라벨도 떼기 쉽게 만들어야 한다. 오랫동안 사이다를 상징했던 녹색 페트병은 자취를 감출 예정이며, 변질 때문에 갈색을 고집했던 맥주 페트병 역시 대체품 개발을 시작했다. 하지만 정책과 규제로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개개인이 플라스틱을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거대한 변화는 언제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

매일노동뉴스 논설위원 박성국

총선 후 노정 관계 시금석은 '사회적 대화'

코로나 사태로 취약 노동자 실업난... 양 노총, 해고금지·전국민고용보험 요구



4.15 코로나 총선이 끝났다. 코로나로 인한 대규모 전염사태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뒀다. 180석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전례에 없는 현상이다. 코로나 사태에 대처할 안정적 의석의 여당을 바라는 국민의 선택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4.15 총선 결과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총선 이후 세 가지 변수가 부상하고 있다. 첫째 코로나 사태의 사회·경제적 여파, 둘째 노동계와 정당들의 관계 정립, 셋째 국난 극복의 카드로서 사회적 대화이다. 외환위기 극복에 구원투수와 같았던 사회적 협약이 다시 성사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코로나 사태마저 헤쳐 나갈 수 있을까. 4가지 변수에 차례로 접근해보자.

코로나가 촉발한 감산·해고 전염병

4월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비와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되며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4% 감소했다. 4월부터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2분기 실물경기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3월 고용 동향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19만 5천명이 감소했다. 고용률은 0.8%포인트, 경제활동참가율 0.9%포인트가 하락했다.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서비스업, 청년층 중심으로 고용위축이 심각했다. 일시휴직자는 전년 동월 대비 126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수준인 160만 7천명을 기록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노동자가 73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들 중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는 절반을 훌쩍 넘는 459만명이다. 4월 22일 정홍준 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위기에 처한 이들은 서비스업 초단시간 노동자·일용직·5명 미만 사업체 노동자·대

기업 하청·파견 노동자들이다. 1998년 외환위기 시절과 마찬가지로 실직과 해고 태풍이 취약계층 노동자를 휩쓸고 지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사회보험과 고용안정망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선에 있는 취약한 노동자 계층의 피해가 많아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규직 노동자도 위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일부 국가들에서 경제위기가 나타났던 외환위기 시절과 달리 코로나 사태는 세계 각국의 동시적 경제침체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종전처럼 V자 곡선을 그리며 반등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얘기다.

노동계와 정당들의 관계 재정립

코로나에서 비롯된 미증유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계와 정당들은 관계 재정립에 나섰다. 코로나 총선 이후 정치지형을 재정비하는 차원이다. 한국노총은 4.15 총선에서 10명의 후보자를 낸 가운데 9명이 당선

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시민당 소속 6명(김주영·한정에·김경협·어기구·이수진), 미래통합당 소속 3명(김형동·임이자·박대수) 국회의원이 배출됐다. 이 가운데 2명이 비례대표 의원이다. 한국노총은 총선 이전 더불어민주당+시민당 후보자 66명과 노동존중실천 협약을 체결했으며, 51명의 당선자(한국노총 출신 5명 포함)가 배출됐다. 21대 국회에서 노동존중을 표방하고 해당 정책과 법안을 실천할 주체를 형성한 셈이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130주년 세계노동절인 지난 5월 1일에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코로나로 인한 일자리 위기에 '해고납용 금지', '총고용 보장'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를 추진할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준비위원회도 조만간 구성한다. 총선 이후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적 연대가 공고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총선에서 정의당·민중당·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등 4개 진보정당과 정책협약을 맺었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 출신은 정의당 소속의 4명(심상정·류호정·강은미·이은)의 당선자이다.

다시 호명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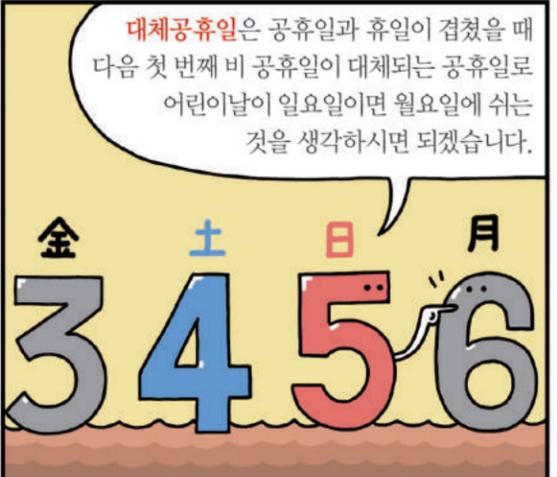
외환위기 시절 사회적 협약은 국난 극복의 밑거름이었다. 1998년 2월 6일 양대 노총과 경영계, 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90개의 합의 조항을 담은 사회적 협약을 체결했다. 2.6 사회적 협약은 2003년까지 6년여 걸쳐 총 121개 개혁법안의 국회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 이것은 경제위기를 상징하던 국내총생산(-5.5%), 실업(7%)과 물가(7.5%) 지표들이 반등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지난 2000년에 국내총생산(8.9%)은 플러스로 나타났고, 치솟던 실업(4.1%)과 물가(2.3%)는 안정화됐다. 당시 노사정은 사회적 협약을 통해 경제회복의 동력을 만든 셈이다.

최근 양대 노총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당초 민주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밖에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가운데 한국노총은 이를 고심했다. 이미 4.15 총선 앞두고 한국노총과 정부는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사회적 합의를 한 바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국노총은 경

제사회노동위원회에 코로나 대처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구하고, 기존의 합의 이행에 무게를 두었다. 그러나 4월 29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격론을 벌인 끝에 지도부들은 김동명 위원장에게 사회적 대화 참여 및 논의를 위임했다. 김동명 위원장과 한국노총 지도부는 5월 11일 대승적 차원에서 국무총리실 주재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코로나 위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사회 준비를 위해 모든 의제와 형식을 열어놓고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코로나 위기는 한국사회 근본적 전환을 위한 기회여야 한다는 게 한국노총 입장이다. 양대 노총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회적 대화의 핵심적 의제는 '해고금지와 사회보험 및 고용안정망 구축'이다. 후자의 경우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즉각 도입으로 제기된다. 노동계의 제안에 대해 경영계는 난색을 표명한 가운데 정부는 중재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이미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자금을 조성하면서 고용유지 원칙을 천명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못한 가운데 산업은행은 기업안정자금 지급할 때 90% 총고용량 유지 원칙을 관련 법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고용보험의 경우 예술인을 포함해 특수고용직의 단계적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양대 노총이 참여함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재의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는 그 뜻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 나타난 노동계와 정부 간 입장차를 줄이는 것이 대화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당분간 입장을 내지 않은 채 노동계와 정부 간 줄다리기를 지켜보면서 향후 쟁길 수 있는 이익을 점쳐 행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계가 입장을 내고, 노동계가 대립할 경우 본격적인 정부의 시간이다. 중재역은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98년 외환위기 시절 사회적 대화에서 나타났던 패턴이다. 5월 30일로 만료되는 20대 국회의 바통을 이어받는 21대 국회는 이후 국회의장과 상임위원회 구성을 끝내야만 본격적인 활동을 한다. 때문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새 국회와 상호작용하면서 성공과 실패의 운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5.1 달력의 휴일 개념 바로 알기

왜 근로자의 날(노동절)은 빨간 날이 아닐까?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예) 일반적인 빨간 날(일요일, 어린이날, 광복절, 성탄절 등) ※ 공직선거법(올해 4.15 총선 등)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하는 휴일(예) 주휴일(일반적으로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5/1)	●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 안 됨	정부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예) 올림픽 개막식



판

KT노동조합과 조합원이 함께 만드는 '판'에서
즐겁게 일하는 조합원의 모습을 그려가는
소식지가 되고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